

영어 정보구조의 억양양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onational Patterns in English Information Structures

김 화 영¹⁾ · 오 미 라²⁾
Kim, Hwayoung · Oh, Mira

ABSTRACT

Many researchers have argued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structure and intonation. Their results can be summarized in three main points: the intonation of topic and focus in English information structures is implemented as i) a pitch accent, ii) a tune (a pitch accent + (an) edge tone(s)), or iii) a boundary ton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various intonational patterns of topic and focus in English information structures, using natural conversations. In this paper, the types of topics and foci are divided, based on contrastiveness. The topics are classified as five non-contrastive and four contrastive topics. The foci are classified as neutral focus, informational focus, and contrastive focus. The results show that the intonation of the topic in English information structures is mainly implemented as a pitch accent, except for the type of the pronoun topic (Lp) which is not implemented as a pitch accent or a tune. However, the intonation of the focus is implemented as a tune in the neutral focus (Fn) and as a pitch accent or a tune in the informational focus (Fi) and the contrastive focus (Fc). In our discussion and conclusion, we suggest that it is not always true that for the meaning of contrast, the topic or the focus is represented as a L+H* pitch accent, which has been the main contrastive intonation from earlier studies.

Keywords: Focus, information structure, intonation, intonational phonology, pitch accent, ToBI, topic, tune

1.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 문장의 정보구조를 이루는 정보단위인 화제(topic)와 초점(focus)이 어떠한 억양형태를 갖는지 실제 발화자료를 토대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Halliday(1967a)가 최초로 영어에서 정보구조와 억양과의 관계를 논한 이후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정보구조가 억양에 의해 구현된다고 보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들의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화제와 초점과 같이 정보구조를 이루는 문장의 정보단위들이 i) 피치엑센트(a pitch accent)로 구현된다고 보는 견해와 ii) 음조(a tune)로 구현된다는 견해, 그리고 iii) 경계성조(a boundary tone)로 구현된

다는 견해이다.³⁾ 정보단위들이 피치엑센트로 구현된다는 견해는 Jackendoff (1972), Bolinger(1986), Vallduví & Engdahl (1996), Gundel (1999), Gundel & Fretheim(2004) 등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이들은 화제가 L+H* 피치엑센트로, 초점이 H* 피치엑센트로 구현된다고 분류하였다. 반면에, 정보단위들이 하나의 음조를 이룬다고 보는 견해는 Pierrehumbert(1980), Steedman (1991, 2000)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화제가

3) 본 논문에서는 정보구조를 이루는 정보단위로 최근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화제’와 ‘초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정보단위에 대한 용어 정의는 기존의 정보구조 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Hockett(1958)과 Gundel (1988)은 화제-논평(topic-comment)으로, Vallduví (1992)와 Vallduví & Engdahl (1996)은 바탕-초점(ground-focus)으로, Jackendoff(1972)는 전제-초점(presupposition-focus)으로, Halliday (1967b, 1970)와 Steedman(1991,2000)은 주제-논술(theme-rheme)로 정의해 왔다. 본 연구에서 정보단위를 ‘화제’와 ‘초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김화영(2005)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화영(2005)을 참조하라.

1) 전남대학교 hwayoung2@hanmail.net

2) 전남대학교 mroh@chonnam.ac.kr

접수일자: 2009년 5월 8일

수정일자: 2009년 6월 8일

게재결정: 2009년 6월 20일

L+H*L-H%(L%)로, 초점이 H*L-L%(H%)로 음조로써 구현된다고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단위들을 경계성조에 의해 분류한 경우는 Lambrecht & Michaelis(1998)에서 찾아볼 수 있다. Lambrecht & Michaelis(1998)에서는 화제와 초점의 운율적 차이는 없고 다만 그들 저서의 각주에서 화제의 표현을 위해 H%가, 초점의 표현을 위해 L%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었다.⁴⁾

위에 언급한 기존의 정보구조와 억양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들은 모두 통제된 실험을 통한 결과이거나 이론적인 논의에 의한 결과들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화제에 대한 연구는 대조화제에만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 있어 화제와 초점에 대한 전반적인 분류에 의한 억양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실제 영어 담화를 음향음성학적으로 분석하여 정보단위로서 화제와 초점이 갖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억양형태를 찾아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Hedberg & Sosa, 2001, 2002; Hedberg, Sosa, & Fadden, 2004, 2006; Hedberg, 2002; 김화영, 2005; 이용재 등, 2006). Hedberg & Sosa(2001)에서는 실제 TV 토론 프로그램⁵⁾을 녹취하여 화제와 초점에 따른 억양 형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억양과 정보구조 범주 사이에 체계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 관계는 기존 연구에서 화제, 초점과 억양이 각각 1:1 대응을 한다는 주장과는 달랐다. 이들은 승인화제(ratified topic)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보구조 범주가 H* 피치액센트로 구현된다고 보았다. Hedberg & Sosa(2001)의 실제 담화 분석에서 야기되는 정보단위의 분류와 방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김화영(2005)에서는 화제와 초점을 보다 세분화였고 더 많은 토론발화자료수를 이용하여 음향음성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용재 등(2006)에서는 김화영(2005)에서 분류한 화제유형들을 재분류하고 토론발화를 자료로 하여 음성분석하였다.⁶⁾

Hedberg & Sosa(2001), 김화영(2005), 이용재 등(2006)이 실제발화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이론 중심적이던 논의에 실질적인 결과물로서 화제와 초점의 억양 양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으나, 음향음성분석의 대상을 토론 상황에만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언어 보편성 문제를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공적인 토론발화는 물론 사적으로 친한 사이에서의 전화대화를 자료로 삼아 정보단위로서 화제와 초점의 억양을 분석한다. 그럼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주로 이론적이거나 제한적 음성분석으로 논의되어 왔던

영어 정보구조의 화제와 초점이 실제 발화상황에서 어떠한 억양으로 구현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화제와 초점에 대한 유형 분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2. 화제와 초점의 유형 분류

공적인 대화자료와 사적인 대화자료의 화제-초점 억양 양상을 음성분석하기에 앞서 분석대상으로서의 화제와 초점에 대한 세분화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2.1에서는 화제유형을, 2.2에서는 초점유형을 분류하였다.

2.1 화제유형 분류

본 논문에서 화제는 이용재 등(2006)에서 분류한 화제유형 분류를 이용하였다. 이용재 등(2006)에서는 Lee (2002)의 ‘비대조화제 표시(non-contrastive topic marking)’와 ‘대조화제 표시(contrastive topic marking)’의 구분을 기준으로 화제를 대조화제와 비대조화제로 나누었다. 이용재 등(2006)에서 비대조화제는 i)앞서 언급한 내용을 대명사로 받는 화제(Lp) 유형, ii) 대화상황에서 대명사로 표현되나 이전에 명시되지 않고 상황을 통해 알게 되는 화제(Lps) 유형, iii)담화지시적·대용적한정사구로 받는 화제(Lnc) 유형, iv)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형태의 담화지시적·대용적 한정사구로 받는 화제(Lncd) 유형, 그리고 v)충칭명사구 (Lncg)의 5 가지 화제유형이 있다. 다음 (1), (2), (3)은 각각 Lnc, Lncd, Lncg 화제유형의 예이다.

- (1) What is Sam doing?

Sam is running.

(Lnc 화제유형의 예: Lee(2002))

- (2) **Rev. Wallis:** And that we can't do. The Catholic

bishops get it right, this consistent ethical right. Capital punishment....

Dr. Falwell: That means John Paul II has it wrong, right?

Rev. Wallis: Well, the pope was against the war in Iraq.

(Lncd 화제유형의 예: MTP Nov. 28, 2004)

- (3) **Mr. Russert:** The sea is disappearing..... Animals

have this early warning system, Albert Hunt, where they detect something happening and begin to run to high ground.

(Lncg 화제유형의 예: MTP Jan. 9, 2005)

(1)에서 Sam은 이미 질문에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으로 대명사 he를 쓰지 않고 그대로 Sam이라는 명사구로 언급되었다. 이때 대답의 Sam은 담화지시적·대용적 한정사구

4) Lambrecht & Michaelis(1998:481)(footnote 6))

5) 미국 PBS TV 정치토론프로그램인 McLaughlin Group

6) 미국 NBC TV 시사 토론 프로그램 Meet The Press

에 해당한다. (2)에서 Rev. Wallis 는 Dr. Falwell 이 언급한 John Paul II 를 그와 동일한 지칭을 의미하는 the pope 로 받고 있다. 이때 the pope 가 바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형태의 한정사구가 된다(이용재 등, 2006 인용). (3)에서 Mr. Russert 는 쓰나미(tsunami)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닷물이 사라지면, 동물들은 본능적인 경고체계가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높은 곳을 향해 달린다’는 것을 상대방인 Albert Hunt 에게 말해주고 있다. Mr. Russert 는 쓰나미에 대한 정조를 설명하기 위해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가진 위험지각 체계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때 animals 는 ‘동물’이란 종류를 총칭하고 있다.

대조화제는 이용재 등(2006)에서 i)의미초점을 받는 화제(Lci)와 ii)대조초점을 받는 화제(Lcc), 그리고 iii)나열형 화제(Lci)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용재 등(2006)의 세 가지 대조화제 유형과 더불어 Lci(p)라는 화제 유형을 하나 더 분류하여 대조화제를 분석하였다. Lci(p)는 Lci 화제 유형에 해당하지만 대명사 형태로 발화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Lci(p)를 굳이 Lci 화제 유형과 따로 분류하여 분석한 이유는 의미초점을 받는 화제들이 대명사로 나타나는 빈도가 다른 화제 유형에 비해 그리 높은 것은 아니지만 명사구로 이루어진 것과는 음성적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본 연구자의 예측 때문이다.⁷⁾ 의미초점을 받는 Lci 화제는 이후 분류될 정보초점 Fi 와는 달리 분류된다. 정보초점 Fi 가 의문사의 문문에 대한 대답으로써 주로 나타나는 반면, Lci 화제는 Büring (2002)의 논의를 바탕으로 분류한 것이다. Büring(2002)에서는 화제명사구가 보통 대조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다음 (4)의 예에서 대담으로 나타난 Fred 가 대조화제로 표시되고 있다.

(4) Q: Who ate what?

A: [[FRED]_F]_{CT} ate the BEANS_F.

(4)의 예에서 Büring 은 Fred 가 대조화제가 되는 이유를 ‘who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이 될 수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합, 예를 들어, who 의 대조집합={Tom, Maria, Fred, William, etc.}에서 다른 후보자(Tom, Maria, William, etc.)가 아닌 바로 Fred 가 콩을 먹었다는 것이 대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5)-(7)은 각각 본 논문에서 분석된 Lci, Lcc, Lcl 화제 유형의 예를 보여준다.⁸⁾

7) 본 연구에서 Lci(p) 외에 발화형태가 대명사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Lnc(p), Lcc(p), Fc(p)를 더 분류하였으나 전체 5000 여개의 자료 중 이들이 차지하는 개수가 2-3 개에 불과하여 분석과정에서 제외되었다.

8) 이용재 등(2006) 재인용

(5) **Mr. Russert:** David Broder, before we go, 2005, what should our viewers be looking for, what issues, what stories?

Mr. Broder: Well, the best news is baseball in Washington, of course, and that's what I'm looking forward....(MTP Jan. 2, 2005)

(6) **Mr. Russert:** Who do you like?

Mr. Safire: I think the democrats will nominate Evan Bayh and Bill Richardson and the Republicans will nominate John McCain and Condi Rice. (MTP Jan. 2, 2005)

(7) **Mr. Kean:** I am for two reasons. One is Sensenbrenner also said that he didn't succumb to pressure and the president knew that, so he wouldn't try that tactic. But the other thing is that, you know, there's one thing about this president: and I know...(MTP Nov. 28, 2004)

(5)에서 Mr. Russert 가 ‘2005년에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Mr. Broder 는 여러 가능한 뉴스 가운데 the best news 에 관해 말함으로써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Lci). (6)에서 Mr. Safire 는 민주당원(the Democrats)과 공화당원(the Republicans)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다(Lcc). (7)에서 Mr. Kean 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One, the other thing 과 같이 나열형 명사구를 이용하여 화제를 말하고 있다(Lcl).

본 논문에서 분류된 화제들은 모두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긍정평서문 내의 명사구에 한하여 분석되었다.

2.2 초점유형 분류

본 논문에서는 김화영(2005)에서 분류한 세 가지 초점유형 분류를 이용하였다.⁹⁾ 김화영(2005)에서는 Gundel (1999)의 초점분류에 기초하여 초점을 중립초점, 정보초점, 대조초점으로 나누었다. 본 논문에서는 김화영(2005)과 마찬가지로 초점을 크게 광의초점과 협의초점으로 구분하여, 광의초점은 문미에 주로 나타나는 중립초점(neutral focus, Fn)으로, 협의초점은 정보초점(informational focus, Fi)과 대조초점(contrastive focus, Fc)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중립초점은 통사적으로 문장의 맨 마지막 어휘 항목에 초점이 오고, 광의초점과 마찬가지로 ‘사건문장’이나 문미부사류, 의문형용사 뒤에서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8)의 예에서 my feelings 는

9) Gundel(1999)에서는 초점을 심리초점, 의미초점, 대조초점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하였다. 여기서 심리초점은 개념상 화제에 가깝다. 그리하여 김화영(2005)에서는 Gundel (1999)의 초점분류 가운데 심리초점을 제외하고 의미초점과 대조초점만을 연구대상으로 취하였다. 그리고 광의초점과 협의초점의 개념에서 문미에 주로 위치하는 광의초점으로서 중립초점을 취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문미에서 중립초점을 받는 경우를 보여준다.

(8) C: You hurt **my feelings!** (Talkbank TB6)

정보초점은 Gundel(1999)에서의 의미초점과 같다. 주로 의문의 대답의 일부에 주어저 청자의 의식 속에 새로운 정보를 첨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초점으로, 그 주요한 목적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의미초점'이란 용어보다는 '정보초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다(김화영, 2005(139) 인용). 다음 (9)는 정보초점의 예를 보여준다.

(9) F2: Who?

F1: **Rachel!** (Talkbank TB5)

(9)의 예는 F2의 '누구?(who?)'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F1이 'Rachel'이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초점을 부여한다.

대조초점은 대조초점을 갖는 화제가 아니면서 대조초점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다음 (10)은 대조초점의 예를 보여준다.

(10) Mr. Safire: I think the Republicans are not going to go along with that, but on Social Security and on holding taxes down – look, when you elect **a Republican**, you reduce taxes. When you elect **a Democrat**, you increase taxes. (MTP Jan. 2, 2005)

(10)에서 '민주당원(democrat)'은 앞서 언급된 '공화당원(republican)'과 대조를 이루며 대조초점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화제와 마찬가지로 분석과 결과의 일관성을 위해 긍정평서문에 한하여 초점 분석을 시행하였다.

3. 화제와 초점의 억양 분석

3.1 분석 자료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실제 토론자료 분석이 갖는 한계점을 해소하고자 자료가 공적인 대화와 사적인 대화로 나누어 비교 분석되었다. 공적인 대화자료로 사용된 분석자료는 미국 NBC TV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Meet The Press(MTP) 4편의 방영분이다.¹⁰⁾ 이 프로그램은 시사 토론이기 때문에 정해

진 대본 없이 방송자들의 즉흥적인 대화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므로 자연스러운 발화자료로 채택되었다. 다만, 방송매체를 이용한 공적인 대화라는 측면에서 생략이 많은 사적인 대화와는 문장구조나 억양에 있어 약간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4년 11월 28일(MTP1), 2005년 1월 2일(MTP2), 2005년 1월 9일(MTP3), 2005년 2월 20일(MTP4) 총 4편의 방송분을 비디오녹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각각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를 제외하고 한 편 당 48분씩 총 192분 분량이 분석되었다. 사적인 대화자료로는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한 Talkbank¹¹⁾ 자료로서 전화대화(CA Bank\CallFriend)를 사용하였다. Engn4984(TB1), engn5926 (TB2), engn6239(TB3), engn6899(TB4), engn5000(TB5), engn6062 (TB6), engn6862 (TB7) 총 7개의 전화대화가 분석되었는데 TB1~TB6는 30분씩이고 TB7은 18분 분량으로 총 198분 분량의 전화대화가 음성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다음 <표 1>은 각각의 자료내에서 분류된 화제와 초점이 관측된 개수를 보여준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억양 분석에 사용된 항목의 개수는 총 4791 개였다.¹²⁾ 그러나 분석 대상으로 분류된 유형 가운데 Lncg와 Lci의 경우는 전체의 1%에도 못미치는 개수를 가질뿐 아니라 실제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Lci(p)의 경우는 적은 자료수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들은 음성분석을 위해 Cool Edit Pro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채취율 44,100Hz, 16 bit Mono sound로 컴퓨터에 저장되었다. 억양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인터넷 공개프로그램인 Praat ver. 5.104를 이용하였고, 억양 분석에 대한 표기는 억양음운론에 근거한 ToBI 레이블링 관습에 따랐다. 분석된 결과의 유의미성 파악을 위해서는 통계프로그램 SPSS windows ver. 12.0으로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χ^2 goodness-of-fit test)을 실시하였다.

10) Meet The Press는 본 연구자가 김화영(2005)과 이용재 등(2006)에서 분석한 발화자료와 동일하다. 김화영(2005)에서는 화제와 초점 억양 분석을 위해 5편 방영분을 분석하였고, 이용재 등(2006)에서는 화제 억양 분석을 위해 3편의 방영분을 분석하였다.

11) <http://talkbank.org/data>

12) 원래 자료수는 5108 개였다. 그러나 실제 자연발화 환경상 주변 소음이나 상대방과 겹쳐말하기 등이 관측되는 317개의 자료는 음성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 1. 각 자료별 분류 유형에 따른 화제와 초점의 발화 개수 및 비율

Table 1. The number and percentage of topic and focus for each data

자료 \ 유형	Lp	Lps	Lnc	Lncd	Lncg	Lcl	Lci	Lci(p)	Lcc	Fn	Fi	Fc	합계	비율 (%)
MTP1	155	0	52	4	0	2	15	1	21	14	12	17	293	6.12
MTP2	198	1	26	4	1	0	24	0	11	65	7	12	349	7.28
MTP3	174	1	17	10	1	0	18	0	33	76	3	11	344	7.18
MTP4	178	5	19	7	1	0	66	1	2	243	3	10	535	11.17
TB 1	237	18	7	2	0	0	29	4	5	143	50	20	515	10.75
TB 2	212	4	7	5	1	3	43	7	3	198	46	6	535	11.17
TB 3	226	4	7	8	0	1	38	18	0	236	50	17	605	12.63
TB 4	162	12	3	4	0	0	30	9	4	141	24	13	402	8.39
TB 5	233	13	5	3	0	0	29	0	3	178	24	8	496	10.35
TB 6	234	5	5	2	0	0	26	1	1	176	7	6	463	9.66
TB 7	99	2	5	2	0	0	16	0	1	107	20	2	254	5.30
합계	2108	65	153	51	4	6	334	41	84	1577	246	122	4791	100
비율 (%)	44.00	1.36	3.19	1.06	0.08	0.13	6.97	0.86	1.75	32.92	5.13	2.55		100

표 2. Lp 화제유형의 억양 구현 양상

Table 2. Intonational patterns for the Lp type

(p<.05)

담화유형	H*	H*H1%	H1%	%H	H	H*	H*H1%	H1%	H*H1%	H1%	H*H1%	H1%	L	L*H1	L*H1%	L1%	X	합계	비율%	통계	
토론발화	합계	3	2	1	41	8	55	0	0	1	4	0	0	1	7	25	0	557	70.8	100	$\chi^2=3773.454$
	비율%	0.43	0.28	0.14	5.82	1.13	7.80	0.00	0.00	0.14	0.57	0.00	0.00	0.14	0.99	3.55	0.00	79.01	100		$d=9/p=.001*$
전화대화	합계	4	1	0	141	40	77	1	1	0	5	1	3	0	1	15	1	1112	140.6	100	$\chi^2=6707.089$
	비율%	0.29	0.07	0.00	100.6	2.85	5.49	0.07	0.07	0.00	0.36	0.07	0.21	0.00	0.07	1.07	0.07	79.26	100		$d=8/p=.001*$

3.2 화제 억양 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화제를 비대조화제와 대조화제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화제에 대해 i)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는지, 음조로 구현되는지 살펴보고, ii) 어떠한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는지 살펴본다.

3.2.1 비대조화제 억양 분석 결과

3.2.1.1 Lp와 Lps 분석 결과

Lp 화제유형의 경우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토론 발화와 전화대화 두 경우 모두 피치액센트나 음조를 형성하지 않는 발화 X(이하, 비강세)의 경우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토론발화: 79.01%, 전화대화: 79.26%). 또한 통계값을 보면 두 담화형태 모두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의 유의도가 p=0.001*로 Lp 화제 발화를 위해 사용된 여러 억양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이는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비강세가 Lp 화제유형에서 주로 사용되는 억양형태임을 나타낸다.

표 3. Lps 화제유형의 억양 구현 양상

Table 3. Intonational patterns for the Lps type

(p<.05)

담화유형	%H	H	H*	L+H*	X	합계	비율 (%)	통계	
토론발화	합계	1	0	2	1	3	7	100	$\chi^2=0.286$
	비율 (%)	14.29	0	28.57	14.29	42.86	100		$d=2/p=.867$
전화대화	합계	9	3	4	0	42	58	100	$\chi^2=70.966$
	비율 (%)	15.52	5.17	6.897	0	72.41	100		$d=3/p=.001*$

Lps 화제유형은 이전 연구에서는 너무 적은 자료 때문에 분석되지 않았었다(이용재 등, 200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토론발화뿐 아니라 전화대화도 함께 분석되었기 때문에 이전 연구에서보다는 보다 더 많은 자료들이 관측되어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표 3>의 전화대화에서는 Lp 유형과 마찬가지로 비강세가 주로 나타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p=0.001*). 그러나, 토론발화에서는 억양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867). 이는 토론발화에서 Lps 화제유형은 어떤 하나의 억양유형으로 발화되려는 경향을 보이지 않으며 비강세 이외에도 H*, L+H*, %H와 같은 다양한

13) <표 2>에서 통계 유의도가 p=.001*로 표시되어 있다. SPSS 통계값은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만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 원래 이 값은 0.000*으로 표시되었다. 이는 유의도 0.05 수준에서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므로 표기의 편의상 0.001*로 표기하였고 이후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였다.

역양형태로 발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자료양에 비해 토론발화에서 관측되는 Lps 화제유형은 자료수가 너무 적어 정확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추후 더 많은 자료 분석과 함께 다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3.2.1.2 Lnc와 Lncd 분석 결과

Lnc와 Lncd 화제유형이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는지 음조로 구현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Lnc와 Lncd 화제유형의 억양 비교

Table 4. Comparison between intonational patterns for Lnc and Lncd types (p<.05)

화제유형	억양유형	토론발화			전화대화		
		개수	비율(%)	통계값	개수	비율(%)	통계값
Lnc	피치액센트	95	83.33	$\chi^2=50.667$	34	87.18	$\chi^2=21.564$
	음조	19	16.67	d=1	5	12.82	d=1
	합계	114	100	p=.001*	39	100	p=.001*
Lncd	피치액센트	18	72	$\chi^2=4.840$	19	73.08	$\chi^2=5.538$
	음조	7	28	d=1	7	26.92	d=1
	합계	25	100	p=.028*	26	100	p=.019*

<표 4>를 통해 토론발화와 전화대화 두 경우 모두 Lnc와 Lncd 화제유형은 피치액센트로 발화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토론발화: Lnc-83.33%, Lncd-72%;전화대화: Lnc-87.18%, Lncd-73.08%).

Lnc와 Lncd 화제유형이 주로 어떠한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실제로 분석된 피치액센트의 유형은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하였다. 이렇게 관측된 피치액센트 유형을 잘 살펴보면, H*, !H*, H* !H*, H*+L, H*+!H* 피치액센트는 모두 H* 피치액센트로, L*, H+L*는 L* 피치액센트로, 그리고 L+H*, L+!H*는 L+H* 피치액센트로 각각 분류가 가능하다. 이외에 H*L*, L*H*, L+H*!H* 등과 같이 H*와 L*가 함께 관측되는 경우는 복합성조로 분류하였다. <표 5>에서 X는 피치액센트 없이 발화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토론발화와 전화 대화는 모두 유의미한 통계값을 보이고 있다. 즉, 각각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H*가 이들 화제유형에서 주로 사용되는 피치액센트임을 의미한다.

표 5. Lnc와 Lncd 유형의 피치액센트 비교

Table 5. Comparison among pitch accents for Lnc and Lncd types (p<.05)

화제	유형	토론발화			전화대화		
		개수	비율(%)	통계값	개수	비율(%)	통계값
Lnc	H*	82	71.90	$\chi^2=205.912$ d=4 p=.001*	25	64.10	$\chi^2=33.103$ d=3 p=.001*
	L*	1	0.88		2	5.13	
	L+H*	23	20.20		5	12.82	
	복합tones	2	1.75		0	0	
	X	6	5.26		7	17.95	
Lncd	H*	16	64	$\chi^2=12.08$ d=2 p=.002*	19	73.08	$\chi^2=18.538$ d=2 p=.001*
	L*	1	4		0	0	
	L+H*	7	28		4	15.38	
	L*+H	1	4		0	0	
3.2.2 대표화제 억양 분석 결과					3	11.54	

Lci와 Lcc 화제유형이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는지 음조로 구현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Lci와 Lcc 화제유형의 억양 비교

Table 6. Comparison between intonational patterns for Lci and Lcc types (p<.05)

화제유형	억양유형	토론발화			전화대화		
		개수	비율(%)	통계값	개수	비율(%)	통계값
Lci	피치액센트	82	66.67	$\chi^2=13.667$	179	85.24	$\chi^2=104.305$
	음조	41	33.33	d=1	31	14.76	d=1
	합계	123	100	p=.001*	210	100	p=.001*
Lcc	피치액센트	57	86.36	$\chi^2=34.909$	14	82.35	$\chi^2=7.118$
	음조	9	13.64	d=1	3	17.65	d=1
	합계	66	100	p=.001*	17	100	p=.008*

<표 6>을 살펴보면, Lci와 Lcc 화제유형 모두 두 담화 유형에서 피치액센트로 억양구현되려는 경향이 음조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Lci: 토론발화-66.67%, 전화대화-85.24%;Lcc: 토론발화-86.36%, 전화대화-82.35%).

Lci와 Lcc 화제유형이 주로 어떠한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에서 Lci(p)는 의미초점을 받는 화제가 보통 명사구가 아니라 대명사 형태로 나타난 경우를 분류한 것이다.

먼저, Lci 화제유형을 살펴보면, 토론발화와 전화 대화에서 모두 유의미한 통계값을 보이고 있다(p=0.001*). 즉,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H*가 Lci 화제유형에 주로 구현되는 피치액센트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미초점을 갖는 화제가 대명사 형태로 발화될 때(Lci(p))는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Lci(p) 유형이 토론 발화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통계분석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화대화에서는 유의미한 통계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피치액센트 없이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X: 77.14%).

표 7. Lci와 Lcc 유형의 피치액센트 비교

Table 7. Comparison among pitch accents for Lci and Lcc types (p<.05)

화제	유형	토론발화			전화대화		
		개수	비율(%)	통계값	개수	비율(%)	통계값
Lci	H*	94	76.42	$\chi^2=183.634$ d=3 p=.001*	161	76.30	$\chi^2=303.256$ d=3 p=.001*
	L*	0	0		2	0.95	
	L+H*	24	19.51		19	9.00	
	복합tones	4	3.25		0	0	
	X	1	0.81		29	13.74	
Lci(p)	H*	1	50	측정불가	7	20	$\chi^2=31.771$ d=2 p=.001*
	L+H*	0	0		1	2.86	
	X	1	50		27	77.14	
Lcc	H*	29	43.94	$\chi^2=51.455$ d=3 p=.001*	8	47.06	$\chi^2=1.529$ d=2 p=.465
	L*	0	0		5	29.41	
	L+H*	33	50		0	0	
	L*+H	1	1.52		0	0	
	복합tones	1	1.52		0	0	
	X	2	3.03		4	23.53	

Lcc의 경우는 토론발화에서 유의미한 통계값이 나타났다(p=0.001*). 이는 높은 비율을 갖는 H*와 L+H*가 이를 제외하고 다른 피치액센트 유형과 차이가 있으며, 이 두 피치액센트가

Lcc에서 주로 구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화대화에서는 통계값이 유의미하지 않다($p=0.465$). 즉, 각각의 피치액센트 간에 차이가 없으며 이들은 어떠한 억양형태로든 구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3 초점 억양 분석 결과

초점이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는지 음조로 구현되는지를 분석한 다음 <표 8>을 보자.

표 8. 초점유형별 억양 비교

Table 8. Comparison between intonational patterns for each focus type

초점유형	억양유형	토론발화			전화대화		
		개수	비율(%)	통계값	개수	비율(%)	통계값
Fn	피치액센트	19	4.79	$\chi^2=324.637$	35	2.97	$\chi^2=1041.163$
	음조	378	95.21	$d=1$	1142	97.03	$d=1$
	합계	397	100	$p=.001^*$	1177	100	$p=.001^*$
Fi	피치액센트	15	60	$\chi^2=1.000$	53	23.98	$\chi^2=59.842$
	음조	10	40	$d=1$	168	76.02	$d=1$
	합계	25	100	$p=.317$	221	100	$p=.001^*$
Fc	피치액센트	27	52.94	$\chi^2=0.176$	35	47.95	$\chi^2=0.123$
	음조	24	47.06	$d=1$	38	52.05	$d=1$
	합계	51	100	$p=.674$	73	100	$p=.725$

<표 8>에서 중립초점 Fn은 주로 문장 끝에 위치하기 때문에 음조로 구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토론발화: 95.21%, 전화대화: 97.03%). 그러나 정보초점 Fi와 대조초점 Fc의 경우는 별다른 차이 없이 나타나는데, 전화대화에서의 Fi는 피치액센트(23.98%)보다는 음조(76.02%)로 더 많이 구현됨을 볼 수 있다($p=0.001^*$). 전화대화는 토론발화보다는 사적이고 생략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어+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보다는 질문에 답이 되는 어구만을 짧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 다음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하나의 단어나 어구로 음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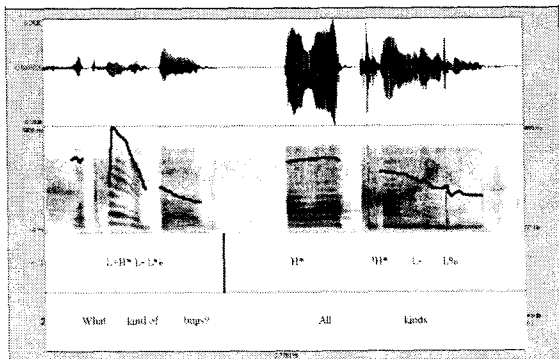


그림 1. Fi 유형이 H*!H*L-L%로 구현되는 경우

Figure 1. A H*!H*L-L% pattern in the Fi type

L+H* L-L% H*!H*L-L%
 F1: What kind of bugs? F2: All kinds.(Talkbank TB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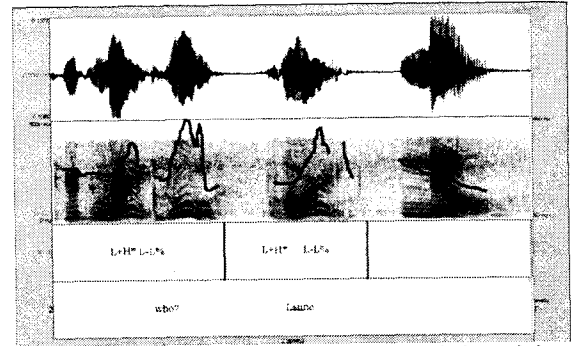


그림 2. Fi 유형이 L+H*L-L%로 구현되는 경우

Figure 2. A L+H*L-L% pattern in the Fi type

L+H*L-L% L+H*L-L%
 F1: Who? F2: Laurie. (Talkbank TB5)

초점이 어떠한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앞서 중립초점 Fn은 문장 끝에서 주로 음조로 구현됨을 보았다. <표 9>에서 Fn은 토론발화와 전화대화에서 모두 유의미한 통계값 $p=0.001^*$ 을 갖는다. 이는 두 경우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갖는 H* 피치액센트가 가장자리 성조와 함께 중립초점 Fn의 음조를 형성해 주는 주요한 피치액센트임을 의미한다.

정보초점 Fi 유형은 토론발화와 전화대화 모두에서 H* 피치액센트가 다른 억양형태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토론발화 $p=0.002^*$, 전화대화 $p=0.001^*$). 이는 자연발화에서 정보 초점 Fi는 주로 H* 피치액센트로 발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조초점 Fc의 경우는 토론발화와 전화대화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토론발화 $p=0.001^*$, 전화대화 $p=0.001^*$). 이는 다른 피치액센트에 비해 H*와 L+H* 두 피치액센트가 대조초점을 발화하기 위해 더 높은 비율로 사용되는 억양형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초점유형별 피치액센트 비교

Table 9. Comparison among pitch accents for each focus type

유형	억양	토론발화		전화대화			
		합계	비율(%)	통계값	합계	비율(%)	통계값
Fn	H*	264	66.33	$\chi^2=591.623$ $d=4$ $p=.001^*$	855	72.52	$\chi^2=2157.399$ $d=4$ $p=.001^*$
	L*	14	3.52		99	8.40	
	L+H*	91	22.86		107	9.08	
	L*+H	0	0		1	0.08	
	복합tones	5	1.26		10	0.85	
	X	24	6.03		107	9.08	
Fi	H*	16	66.67	$\chi^2=13$ $d=2$ $p=.002^*$	162	73.30	$\chi^2=399.249$ $d=2$ $p=.001^*$
	L*	2	8.33		17	7.69	
	L+H*	6	25		25	11.31	
	L*+H	0	0		1	0.45	
	복합tones	0	0		8	3.62	
	X	0	0		8	3.62	
Fc	H*	25	51.02	$\chi^2=35.327$ $d=3$ $p=.001^*$	41	57.75	$\chi^2=22.085$ $d=2$ $p=.001^*$
	L*	1	2.04		3	4.23	
	L+H*	20	40.82		21	29.58	
	L*+H	0	0		3	4.23	
	복합tones	2	4.08		0	0	
	X	1	2.04		3	4.23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 정보구조를 이루는 화제와 초점이 어떤 억양 양상을 보이는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토론자료와 전화대화라는 공적·사적인 자연발화상황을 모두 음성분석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비대조화제의 경우, Lp 화제유형에서 주로 발화되는 억양 유형은 피치액센트 없이 발화되는 경우였다. 그 다음 억양 유형으로는 토론발화의 경우 H*(7.80%)>%H(5.82%) 순서로, 전화대화의 경우 %H(10.05%)>H*(5.49%) 순서로 발화 경향이 나타난다. Lp 화제를 H* 피치 액센트로 발화하는 경향은 전화대화보다는 토론발화에서 더 우선순위를 보여주는데, 이는 이미 언급되었던 사람이나 사물이라 할 지라도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지시자(제)가 누구(무엇)인가를 방송에서 분명하게 전달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Lps 화제유형은 이전 연구에서는 자료수의 부족으로 분석되지 못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이 가능했고, 그 결과 전화대화에서는 비강세가 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자료 수의 부족으로 인해 토론발화가 갖는 어떤 특정 억양 유형으로 구현된다고 결론 짓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많은 자료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화제가 대명사형이 아닌 명사구의 형태로 나타나는 Lnc와 Lncd 화제유형의 경우는 토론발화와 전화대화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 두 유형의 화제는 피치 액센트로 구현되며 주로 H* 피치액센트가 사용된다.

대조화제의 경우, Lci 화제유형은 피치액센트로 발화되는 경향이 높으며 토론발화와 전화대화 모두에서 H* 피치액센트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치액센트의 의미 해석 측면에서 볼 때 이용재 등(2006)에서 밝힌 바와 같다. 즉, Lcc 화제가 대조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반면, Lci 화제는 화자가 대조집합의 한 구성원을 선택하여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Lcc 화제유형보다 새로운 정보 전달의 의도가 더 강해 H*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달리 Lci가 대명사 형태로 나타나는 Lci(p)의 결과는 전화대화에서 H*가 아니라 비강세 형태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77.14%, p=0.001*). 이는 의미초점으로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 구현 형태가 Lp 화제유형의 경우처럼 대명사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미초점을 갖는 화제라 할지라도 대명사라는 단어 특성상 친한 사이의 자연스러운 발화에서 피치액센트를 두어 발화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대조초점을 갖는 Lcc 화제유형의 경우 Lci 유형과 마찬가지로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는 경향이 높다. 토론발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피치액센트가 H*와 L+H*인 반면, 전화 대화에서는 선호되는 피치 액센트를 분류하지 못하였다.

Pierrehumbert & Hirschberg (1990)에 의하면, L+H* 피치 액센트는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주로 이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 자연발화를 음성분석한 결과는 L+H*가 대조를 나타내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피치 액센트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화대화 분석에서 L+H* 피치액센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하게 대조초점의 의미를 갖는 Fc 초점유형에서는 토론발화와 전화대화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 즉, 대조초점을 위해 H*와 L+H*가 주로 구현되는 피치액센트임을 보였다. 억양 구현된 어구가 대조초점을 갖는 화제(Lcc)이든 대조초점(Fc)이든 이 두 가지 형태는 ‘대조성’이라는 문제로 많은 연구가 되어 왔다. 특히 이들의 억양에 대해 논할 때는 대체적으로 L+H* 피치액센트로 구현된다고 보는 것이 주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대조를 화제와 초점으로 분류했을 때 다른 결과를 보였다. 앞서 화제와 초점의 분류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Lcc의 경우는 대조초점을 갖는 화제이고, Fc는 Lcc가 아닌 대조초점을 분석한 것이므로 이 두 유형을 통합하여 대조성이 갖는 억양 유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다음 <표 10>에서는 이들을 통합하여 이제까지 논의되고 있는 대조성에 대한 억양 형태를 살펴보았다.

표 10. Lcc+Fc 피치액센트 비교

Table 10. Comparison among pitch accents for Lcc+Fc (p<.05)

억양유형	토론발화			전화대화		
	합계	비율(%)	통계값	합계	비율(%)	통계값
H*	54	46.96	χ ² =85.522 d=3 p=.001*	49	55.68	χ ² =80.409 d=4 p=.001*
L*	1	0.87		8	9.09	
L+H*	53	46.09		21	23.86	
L*+H	1	0.87		3	3.41	
복합tones	3	2.61		0	0	
X	3	2.61		7	7.95	

<표 10>을 통해 대조초점을 갖는 대조화제 Lcc와 대조초점 Fc를 통합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통계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둘 다 p=0.001*). 즉, ‘대조’의 의미를 갖는 어구는 H*와 L+H*가 주로 사용된다는 것인데 기존의 이론 중심이던 대조성에 대한 억양 연구의 결과(L+H*)와는 다르다. 더우기 전화대화에서의 L+H* 피치액센트 비율은 토론발화에서의 비율만큼 높지는 않다(23.86%). 이러한 결과는 이용재 등(2006)에서 언급한 ‘L+H*는 대조의 의미에 그나마 많이 사용되는 피치액센트이다’라는 결론이 옳지 않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초점의 경우, 중립초점 Fn은 문미에 주로 나타나므로 피치액센트보다는 피치액센트와 경계성조가 결합된 음조로 주로 발화되었다. 그러나 의미초점 Fi와 대조초점 Fc에 대해서는 피치액센트나 음조로 구현되는 경우가 구분없이 사용되는 경향이 높았으며 사적으로 친한 사이의 대화에서 의문문의 대

답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만 짧은 어구를 발화하여 음조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다.

중립초점 Fn 은 주로 H* 피치액센트와 함께 음조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살펴보았다(토론발화: 66.33%, 전화대화: 72.52%). 정보초점은 주로 H* 피치 액센트로 구현되었는데 이는 화자가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조초점이 어떠한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느냐의 문제는 앞서 대조화제 Lcc 와 함께 진술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화제와 초점이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는지, 음조로 구현되는지, 또는 경계성조만으로 구현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실제 발화자료를 공적인 대화와 사적인 대화로 나누어 분석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화제는 피치액센트를 갖지 않는 대명사형 화제유형(Lp, Lps)을 제외하고는 주로 H*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았다(Lnc, Lncd, Lci 화제유형). 초점에 관해서는 중립초점 Fn 은 문장 끝에 주로 나타나므로 H* 피치액센트를 포함한 음조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고, 정보초점 Fi 의 경우에는 청자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H* 피치액센트로 구현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적인 대화에서는 필요한 정보만 짧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 H* 피치액센트와 더불어 음조를 이루는 경향이 있음을 보았다. 대조성과 관련하여 대조초점을 갖는 화제 Lcc 와 대조초점 Fc 에 대해서는 H*와 L+H* 피치액센트가 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

화제가 H%로 표현되고 초점이 L%로 표현된다는 Lambrecht & Michaelis(1998)의 논의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다 음 <표 11>과 같이 그들과는 다른 결과를 얻었다.

표 11. 화제와 초점의 경계성조 비교 분석

Table 11. Comparison between boundary tones for topic and focus

(p<.05)

발화 유형	토론발화						전화대화					
	화제			초점			화제			초점		
경계 성조	개수	비율 (%)	통계값	개수	비율 (%)	통계값	개수	비율 (%)	통계값	개수	비율 (%)	통계값
L%	46	90.20	$\chi^2=32.961$	331	89.22	$\chi^2=228.251$	28	90.32	$\chi^2=20.161$	995	84.11	$\chi^2=550.506$
H%	5	9.80	d=1	40	10.78	d=1	3	9.68	d=1	188	15.89	d=1
합계	51	100	p<.001*	371	100	p<.001*	31	100	p<.001*	1183	100	p<.001*

<표 11>을 살펴보면 화제와 초점이 모두 L%로 표현되는 경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토론발화: 화제-90.20%, 초점-89.22%; 전화대화: 화제-90.32%, 초점-84.11%).¹⁴⁾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기존 연구의 논의와는 달리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화제는 피치액센트로, 초점은 피치액센

트와 음조가 유형에 따라 달리 구현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구조와 억양과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 긍정평서문에 한해서 화제와 초점의 억양을 분석하였다. 추후에는 긍정평서문뿐 아니라 의문문이나 부정문 등 다른 양상의 문장들 역시 고려하여 보다 일반적인 결론을 얻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6 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 연구 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과제번호: KRF-2006-A00133).

참고 문헌

Kim, H. (2005). "A Study on Intonation of Topic and Focus in English Information Structure", Ph.D.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김화영, (2005). "영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에 대한 억양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ark, C. W. (2003). *Topic and Focus in the Korean Information Structures*, [In Korean] Seoul: Yeokrak.
(박철우, (2003).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 역락.)

Lee, Y. & Kim, H. (2006). "A Study on Intonation of the Topic in English Information Structure", [In Korean], *Speech Sciences*, Vol. 13, No. 2, pp. 87~105.
(이용재, 김화영, (2006). "영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에 대한 억양 연구," 음성과학, 13 권, 2 호, pp. 87-105.)

Beckman, M. E. & Elam, G. A. (1997). "Guidelines for ToBI labelling. Version 3.0",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Linguistics.

Bolinger, D. L. (1986). *Intonation and Its Parts; Melody in Spoken English*,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Büring, D. (2002). "On D-Trees, beans, and B-accen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Vol. 26, No. 5, pp. 511-545.

Gundel, J. K. (1988). "Universals of topic-comment structure", in Michael Hammond, Edith Moravcsik, and Jessica R. Wirth (eds.), *Studies in Syntactic Typology*, Amsterdam: John Benjamins, pp. 209-239.

Gundel, J. K. (1999). "On different kinds of focus", in P. Bosch and R. van der Sandt, (eds.), *Focus: Linguistic, Cognitive, and Computational Persp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93-305.

Gundel, J. K & Fretheim, T. (2004). "Topic and focus", *The*

14) 경계성조에 관해 화제와 초점이 모두 L%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론은 Hedberg & Sosa(2001)의 결론과도 일치한다.

- Handbook of Pragmatic Theory*, Blackwell Publishing Ltd, pp. 175-196.
- Halliday, M. A. K. (1967a). *Intonation and Grammar in British English*, The Hague: Mouton.
- Halliday, M. A. K. (1967b).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Journal of Linguistics*, Vol. 3, pp. 199-244.
- Halliday, M. A. K. (1970). "Language structure and language function", in Lyons, John (ed.), *New Horizons in Linguistics*, Penguin Books Ltd, pp. 140-165.
- Hedberg, N. & Sosa, J. M. (2001). "The prosodic structure of topic and focus in spontaneous English dialogue", *Topic and Focus: A Workshop on Intonation and Meani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Institute of Linguistics.
- Hedberg, N. (2002). "Topic-focus controversies", presented at the symposium "Informationstruktur - kontrastivt", Lund, Sweden, Dec., pp. 6-8, 2002.
- Hedberg, N. & Sosa, J. M. (2002). "The prosody of questions in natural discourse", *Proceedings of Speech Prosody 2002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eech Prosody)*, Aix-en-Provence, France, pp. 375-378.
- Hedberg, N., Sosa, J. M. & Fadden. (2004). "Meanings and configurations of questions in English", *Proceedings of Speech Prosody 2004*, Nara, Japan.
- Hedberg, N., Sosa, J. M. & Fadden. (2006). "Tonal constituents and meanings of Yes-No questions in American English", *Proceedings of Speech Prosody 2006*, Dresden, Germany
- Hockett, C. F.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McMillan.
- Jackendoff, R. S.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MIT Press.
- Lambrecht, K. & Michaelis, L. A. (1998). "Sentence accent in information questions: Default and Projec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Vol. 21, pp. 477-544.
- Lee, C. (2002). "Contrastive topic and proposition structure", in Di Sciullo, Anne-Marie. (eds.), *Asymmetry in Grammar*, John Benjamins.
- Pierrehumbert, J. (1980). *The Phonology and Phonetics of English Intonation*, Ph.D. thesis, Massachusetts: MIT.
- Pierrehumbert, J. & Hirschberg, J. (1990). "The meaning of intonational contours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e", in P. R. Cohen, J. & M. E. Pollack (eds.), *Intentions in Communication*. Cambridge, MA: MIT Press, pp. 271-311.
- Steedman, M. (1991). "Structure and intonation", *Language*, Vol. 67, pp. 260-296.
- Steedman, M. (2000). "Information structure and the syntax-phonology interface", *Linguistic Inquiry*, Vol. 31, pp. 649-689.
- Vallduví, E. (1992). *The Informational Component*, New York: Garland.
- Vallduví, E. & Engdahl, E. (1996). "The linguistic realization of information packaging", *Linguistics*, Vol. 34, pp. 459-519.
- **김화영(Kim, Hwayoung)**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725
 송화마을 휴먼시아 101-104
 Tel: 010-2600-2308
 Email: hwayoung2@hanmail.net
 관심분야: 음성학, 음운론, 영어교육
- **오미라(Oh, Mira)**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Tel: 062-530-3165
 Email: mroh@chonnam.ac.kr
 관심분야: 음운론, 음성학
 현재 영어영문학과 교수